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7 SUMMER

VOL.6



## WIN CLASS

SPECIAL THEME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FINANCE CLASS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PREMIUM CLASS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Premium Service**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Portfolio Service**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용상품  
리포팅 서비스

**Consulting Service**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WIN CLASS

오직 당신을 위해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과감하게-  
위기에선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WIN CLASS의  
승리투자공식이다.

승리를 향한  
자산관리 어프로치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Tel. 02-729-6423, 6419  
디자인·제작·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1.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SPECIAL SERIES</b>	6	<b>Special Theme ①</b>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10	<b>Special Theme ②</b> 미국 시니어론(뱅크론) 투자
<b>FINANCE CLASS</b>	18	<b>금융시장과 전망</b>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22	<b>ISSUE</b>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로 수익과 절세를 한번에
	26	<b>금융포커스</b>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9	<b>펀드상품</b>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2017 vol.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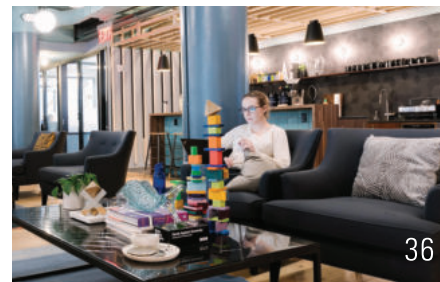
<b>PREMIUM CLASS</b>	32	<b>실버로드</b> 100세 시대 이제는 무형자산을 쌓아야 할 시기다
	36	<b>Brand New</b> 사무실에 알파를 더하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WeWork)
	40	<b>공연스케치</b>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44	<b>Special Interview</b> 음악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름답다 리처드 용재 오닐
	48	<b>건강레시피</b> 현대인을 옥죄는 정신병, '강박증'을 말한다
	50	<b>여행의 재발견</b>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만나다
	58	<b>문화트렌드</b> 미니멀 라이프, 풍요에서 가치의 시대로
	60	<b>Guide to Golf</b> KLPGA 박현지 프로의 드라이버 샷
	66	<b>책 읽는 즐거움</b> 기본 좋은 햇살 아래 읽는 책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자산관리 승리공식

- Consulting Service** |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자산관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 Portfolio Service** | 고객님의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용상품, 리포팅 서비스
- Premium Service** |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경조사 지원







# SPECIAL SERIES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사안들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장미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장기간에 걸친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시장 내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하게 일을 수행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번 새 정부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부동산 관련 정책과 함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글. 최영준 IBK기업은행 WM사업부 과장



## 시장 규제 VS 시장 완화

작년 11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으면서 움찔거리던 시장이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가 설날연휴가 지난 2월 초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던 부동산 시장은 장미대선이 본격화 되자 이내 관망세로 돌아섰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sup>1)</sup>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동안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 주택을 사라고 권유했지만 가계부채가 1,344조를 넘어선 현재(2017년 4월 기준)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난달에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었다(2017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017.4.18). 정부·학계·부동산·건설업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날 축사를 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부가 바뀌지만 주택·도시·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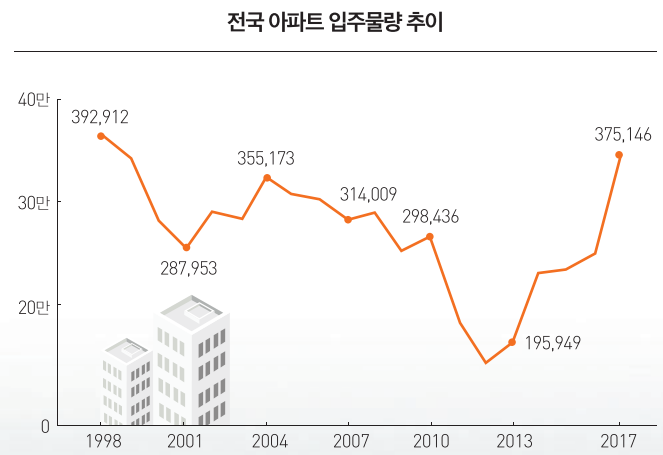
1) 문재인 대통령 가계부채 관리방안 공약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총량관리제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발표(SBS뉴스, 2017. 5. 6)

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전문가 좌담(이데일리 2017. 4. 18)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는 임대주택을 공급<sup>3)</sup>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 내용에서 발표되지 않은 재원조달, 부지확보문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각 부처 실무진을 통해 다듬어진 내용으로 시장에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택 공급량으로 인해 2016년 내내 많은 시장전문가들이 꾸준히 '공급과잉'에 대해서 시장불안요소로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시장에 공급되어 왔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던 주택수와 비교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물량<sup>4)</sup> 대비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공급물량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서울내에서 임대주택이 일정수준 이상 공급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지역의 경우 시장가격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뜨거운 감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나 VS 유예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게되면 그 이상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제도의 범위 내에 있는 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는 142개, 8만 9,597 가구이다. 물리적으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진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서서히 가격 상승 동력을 상실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4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했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서는 관련 계획을 백지화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협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sup>5)</sup> 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예 연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 초과이익환수제를 계속해서 새로운 이유를 들어 유예하게 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극화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난 수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견인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안정'이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유예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발논리에 있어서 자신을 평가할 때 개발되고 나서의 미래가치를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에 적용하지 않듯이 재건축 현장의 준공시점에 초과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매각을 통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 부동산 정책에 초점

지난 2016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부동산 규제, 공급과잉, 금리인상, 국정공백”이 거론되었다. 이중 19대 대선으로 인해 “국정공백”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불안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가격 반등을 위한 숨 고

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확충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추측했을 때 도시재생 정책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은 서울 강북 등 일부 낙후된 지역의 지가 상승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곳의 재생활성화 지역<sup>6)</sup>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정안정을 꾀하려는 새 정부에서 성급하게 개발 논리에 따른 도시재생 신규지역 선정과 같은 모험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도시재생을 위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인식 뉴딜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해당지역이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모한다면 주택·건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N CLASS

3) 문재인 대통령 임대주택 공약: 공공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 우선공급) 매년 4만호, 청년층 맞춤형주택 매년 5만호, 매년 다양한 명칭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공약집 2017. 5. 12)  
 4) 2017~2018년까지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78만 2,921 가구로 집계(자료제공 : 부동산 114REPS, 2016. 12. 23. 조사기준)  
 5) 한국주택협회, 국민 주거안정-내수진작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 (아시아뉴스통신, 2017. 4. 4. 기사 내용 중)  
 6)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2016): 재생활성화 지역 - 종로구 창신-송인동, 용산구 해방촌, 구로구 가리봉동, 동작구 상도동, 송파구 암사동, 마포구 신촌, 성동구 성수, 성북구 정위동





#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미국 시니어론(뱅크론) 투자

글. 임태호 IBK기업은행 WM사업부 과장



##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미국의 Fed는 FOMC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0.75%~1.0%로 0.25%p 인상했다. 9년 간의 제로금리 이후 세 번째 금리인상이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Fed 옐런 의장의 발언과 우호적인 경제지표 발표로 3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방향으로 의견을 급선회하였고 실제로 3월 금리인상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이나 트럼프 대통령 정권, Fed의 인상 의지를 고려할 때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Fed는 3월 FOMC 회의를 통해 '3·3·3플랜(3년 간 연 3회씩 연 3%까지 금리인상)'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투자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인상 시에 수혜가 예상되는 '시니어론(또는 뱅크론, 레버리지론)' 펀드가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투자자금이 유입됐다. 규모는 2016년 4,000억원 이상, 그리고 2017년 1분기에만 1조원으로 해외의 생소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 쏟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시니어론에 대해서

시니어론(Senior Loan)이란 은행,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등이 리파이낸싱이나 인수합병(M&A), 사업 확장 및 일반 기업 활동 등의 목적으로 투자등급채권 이하(BBB-, S&P기준)의 기업에게 운용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담보 대출을 말한다.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혹은 뱅크론(Bank Loan)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니어론은 기업의 자산(유무형 자산,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다른 부채보다 우선 상환되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 대출채권이라고 하며 이런 이유로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하이일드(고위험 고수익)채권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니어론의 회수율은 74.4% 수준으로 하이일드채권(43.8%)보다 높다. 시니어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일반적으로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사용)에 따라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Libor금리에 250bp~600bp 사이의 가산금리(Spread)를 더해서 산정된다.

시니어론은 높은 이자수익률로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일드채권과 많이 비교되고 있다. 모두 투기등급채권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비교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니어론과 하이일드채권 모

## 시니어론 vs 하이일드채권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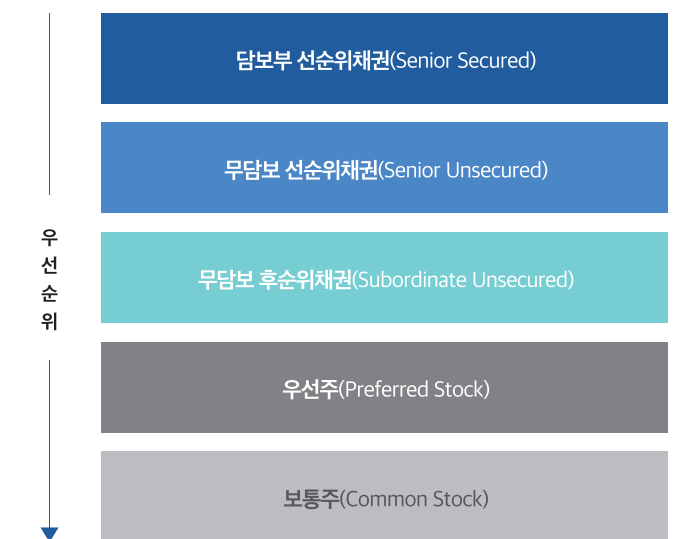
구분	시니어론	하이일드채권
신용등급	BBB- 이하	BBB- 이하
담보	있음	없음
자본구조순위	선순위	Loan보다 후순위
지급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만기	5~7년	7~10년
회수율*	평균 74.4%	평균 43.8%

자료: IBK기업은행

\* S&P Capital IQ LossStats & LCD. 데이터는 LCD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1998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도가 발생한 410개의 레버리지 신디케이트 중장기 대출에 대한 최종 회수율에 기초한다.

두 비슷한 신용등급의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니어론의 경우에는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회수율이 하이일드채권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 자본구조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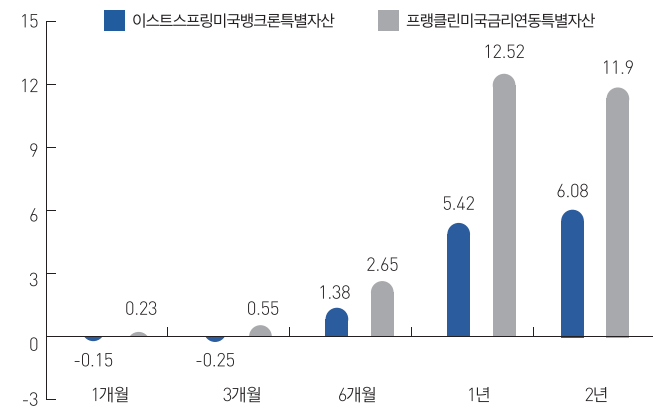
자료: 하나대투증권

이처럼 시니어론은 하이일드채권보다 안전하며, 금리 인상시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니어론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나 작년의 성과와는 달리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연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던 시니어론 펀드지만 연초 이후 수익률이 -0.25% ~ 0.55%에 불과하자,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의 상승이 시니어론 가격에 선반영 됐다는 분석과 시니어론펀드의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특별자산과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의 수익률



2017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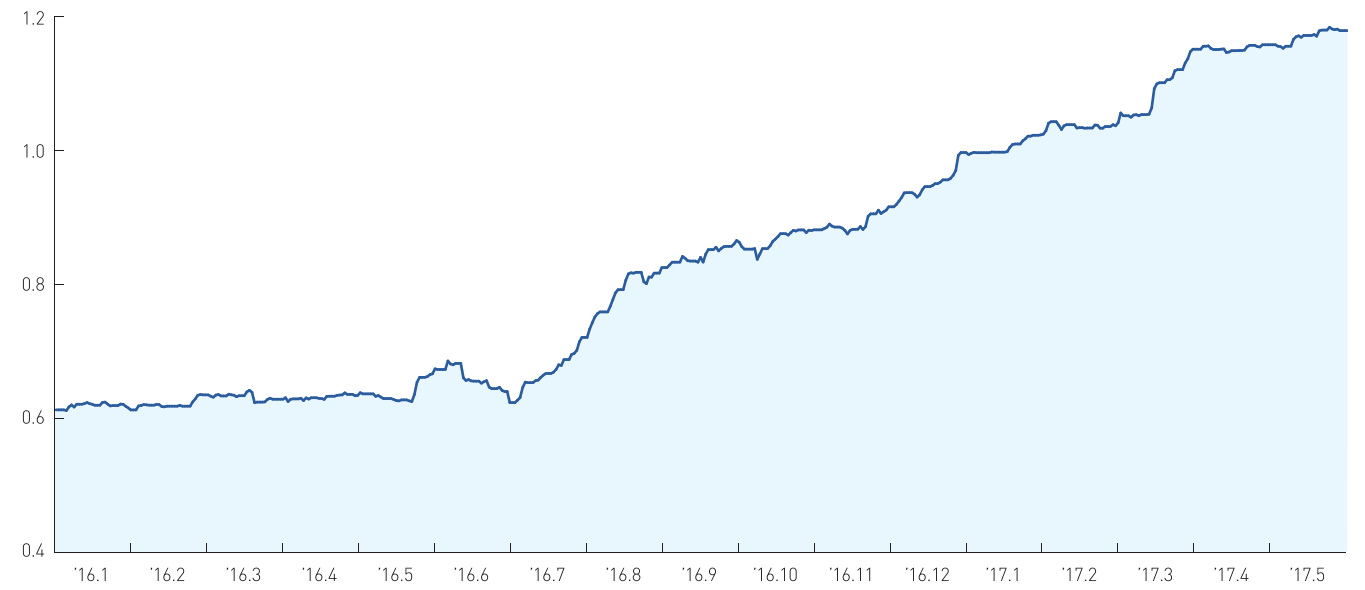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현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작년 시니어론의 화려했던 성과의 이유를 되짚어보고 향후 시니어론펀드에서 어느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 시니어론 성과와 그 원인

시니어론은 'Libor금리 + 가산금리'의 변동금리부 구조이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론이 0.75%~1.75% 최저보장수준(Floor)금리를 가지고 있다. 즉 Libor금리가 최저보장수준(Floor) 금리를 상회해야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미국 Libor금리가 1%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금리인상이 시니어론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미국 Libor금리가 1.18%로 추가 상승했음에도 시니어론의 성과가 작년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Libor금리 상승이 아니라면 어떤 요인이 작년 시니어론 펀드 성과를 만들어 냈을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미국의 경기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단순히 미국 경기 개선만을 얘기하는 것

미국 Libor금리 상승 추이



2016년 1월~2017년 5월 기준

이 아니다. 미국의 경기 개선으로 미국 기업 부도율이 하락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선호(Risk On) 추세가 형성되어 시니어론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가 설득력이 더 높다. 왜냐하면 작년 시니어론과 하이일드채권의 수익률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니어론은 투기등급(BBB- 이하) 기업의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이일드채권과 성격이 비슷하다.

실제로 과거 10년 간 두 자산의 투자수익률 성과의 상관계수도 약 0.86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만약 금리상승이 주요원인이라면 하이일드채권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발생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016년도 역시 시니어론과 하이일드채권은 함께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대표적인 미국의 시니어론 ETF인 PowerShares Senior Loan Portfolio ETF(블룸버그 티커 : BKLN US Equity)와 대표적인 미국의 하이일드채권 ETF인 iShares iBoxx \$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블룸버그 티커 : HYG US Equity)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시니어론보다 하이일드채권이 두 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두 ETF의 자산 구성을 볼 때 신용등급이나 만기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과차이는 시니어론이 하이일드채권보다 선순위이며 과거 회수율 또한 더 높았던 점에 기인하는 합당한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기 개선으로 미국 기업 부도율이 하락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선호(Risk On) 추세가 형성되어 시니어론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KLN(미국의 시니어론 ETF) vs HYG(미국의 하이일드채권 ETF) 만기 비교**

만기	BKLN (미국의 시니어론 ETF)	HYG (미국의 하이일드채권 ETF)
1년 이하	2.06%	9.95%
1년~5년	39.61%	50.44%
5년~10년	59.33%	39.4%
10년 이상	-	0.21%

2017년 3월 31일 기준

**BKLN(미국의 시니어론 ETF) vs HYG(미국의 하이일드채권 ETF) 신용등급 비교**

신용등급	BKLN (미국의 시니어론 ETF)	HYG (미국의 하이일드채권 ETF)
AAA~A	0%	0%
BBB	18.39%	12.5%
BB	42.49%	48.72%
B	30.13%	37.73%
CCC	4.5%	10.84%
CC	1.79%	1.42%
C	0%	0.05%
Not Rated	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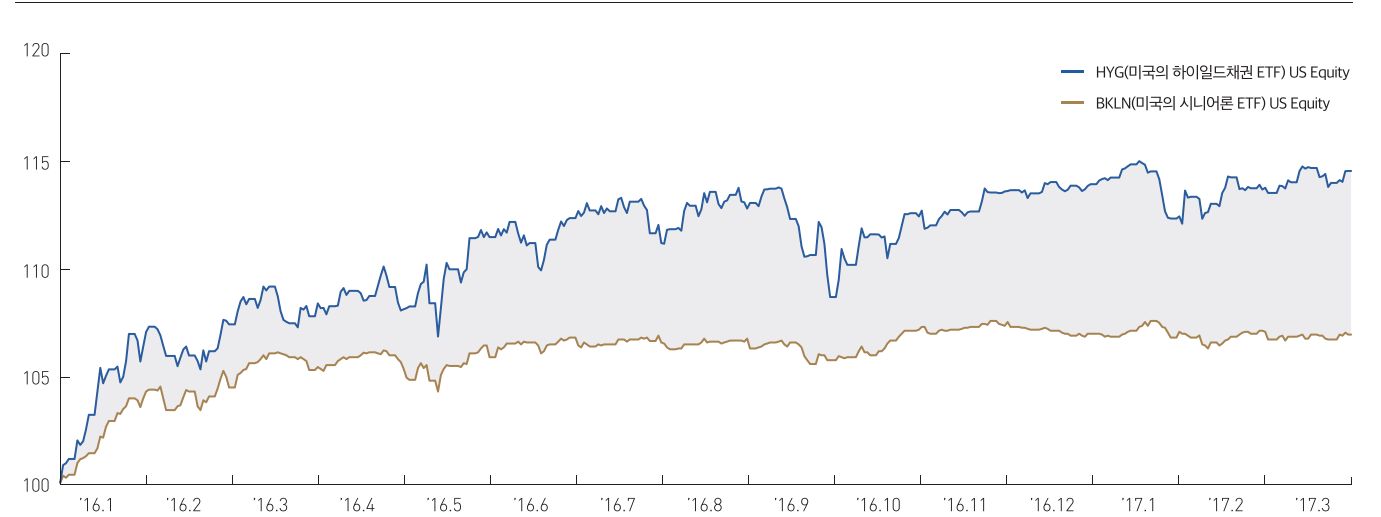
2017년 3월 31일 기준

결국 작년의 시니어론 펀드 성과는 미국 Libor금리 상승보다는 미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결과물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시니어론 펀드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단순한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제 미국의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부도율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계속 해서 위험자산 선호(Risk On) 추세를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겠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해 시장을 바라봐야 추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니어론 투자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니어론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아닌 '미국 Libor금리 상승에 따른 증가된 이자수익'이다.



**시니어론과 하이일드채권 수익률 비교**



2016년 1월~2017년 5월 기준

**향후 시니어론 투자 전망**

올해 시니어론 투자 고려 시 아쉬운 점은 미국의 시니어론의 가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S&P/LSTA US Leveraged Loan 100 Index'의 추세를 볼 때 시니어론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에 앞으로는 추가 상승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옆의 그래프에서 보면 'S&P/LSTA US Leveraged Loan 100 Index'는 100pt를 초과한 적이 거의 없으며 현재는 약 98.85pt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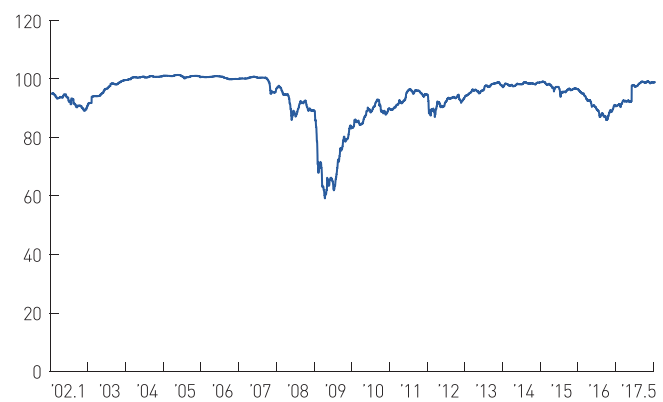
결국 시니어론 가격 상승의 수혜를 봤던 작년과 같은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니어론 투자

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니어론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아닌 '미국 Libor금리 상승에 따른 증가된 이자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론 투자는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시니어론의 높은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어졌지만 변동금리부 구조에 의한 인컴 수익 상승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적인 금리 상승 시기에 채권 투자는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시니어론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시에도 평가손실이 제한적이므로 시니어론의 투자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시니어론 펀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작년만큼의 화려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채권투자의 대안 성격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중 하나의 자산으로서 편입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P/LSTA US Leveraged Loan 100 Index**



2002년 1월 ~ 2017년 5월 기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시니어론이나 하이일드채권은 투기등급 기업 일부에서 신용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5년 'S&P/LSTA US Leveraged Loan 100 Index'가 86pt 수준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관련 기업들의 부도가 시니어론이나 하이일드채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WIN CLASS





# FINANCE CLASS

---

재테크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 정보를 알아봅니다.



#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글.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



## 하반기 경기순환을 감안한 투자자산 선택

“일정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경기’의 특성이다. 경기는 적절한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사용돼 왔다. 과거 각각의 경기국면에 따라 부각됐던 자산과 부진했던 자산에도 일정한 패턴이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경기국면을 판단하고 전망해,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순환을 감안해 주식시장의 상승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고, 하락기에는 여타 투자자산을 선택해 분산투자함으로써 수익률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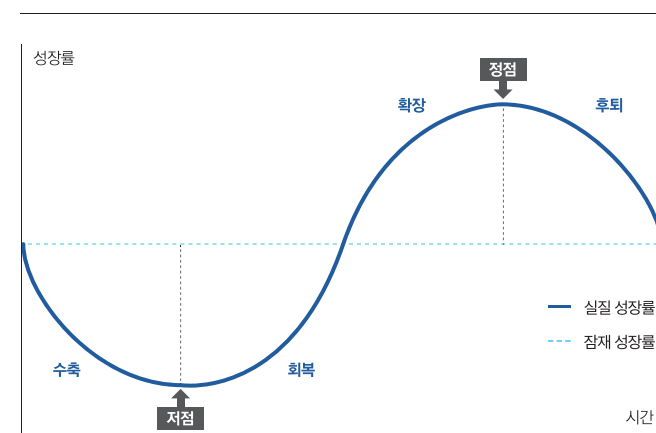
1990년 이후 한국의 경기를 확장, 후퇴, 수축, 회복 등 4국면으로 나눠 분석해 보면 국면별로 주요 투자자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원자재 등) 수익률이 의미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국면은 구체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인 GDP 갭을 이용했다. 실질성장률의 하락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경우는 ‘후퇴’, 하락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경우는 ‘수축’, 상승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경우는 ‘회복’, 상승국면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경우는 ‘확장’으로 나뉜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고, 현재 9차 순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3분기 짧은 후퇴국면과 4분기 수축국면을 거친 뒤 올해 1분기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한국 경기의 회복국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높았고, 국내채권과 해외채권 수익률

경기는 적절한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사용돼 왔다.



은 부진했다. 올해 1분기 주요 투자자산별 수익률은 과거 회복국면에 나타났던 특징이 확인된다. 1분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수익률은 각각 6.6%와 6.4%로 높았고, 국내채권은 0.2%, 해외채권은 1.6%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회복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는 3분기에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민심안정과 내수부양을 위해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확장국면에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 역시 회복국면과 마찬가지로 국내 및 해외 주식이었다. 확장국면으로 진입한다면 국내의 주식은 추가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순환 국면 그래프



자료: IBK투자증권

그러나 단기 부양 이후 새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후퇴국면으로 갈 수 있다. 후퇴국면에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은 국내주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 빠르게 주식에 대한 비중축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경기국면을 이용한 투자 시 유념해야 할 것은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국면 전환에 따른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경기국면 전환이 빠르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의 진폭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반대로 글로벌 위기 발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위축도 없다. 때문에 하나하나의 국면이 매우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투자 수익률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약제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KOSPI

2분기 KOSPI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300P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 이후 이런 KOSPI의 강세에는 2015년 11월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및 신정부 출범 이후 스튜어디십 코드 시행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올해 하반기 역시 상반기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았던 우리나라의 대선 이후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년까지 대부분 KOSPI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물론 대선이 KOSPI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이후 신정부의 부양책 및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의 해소 기대감은 증시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KOSPI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대차거래잔고도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초로 올라섰다. 대차잔고 증가가 모두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KOSPI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라 향후 지수 하락에 베풀하는 투자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지수 상승과 함께 개인과 기관의 차익매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차잔고의 급증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대차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면 오히려 급증한 대차잔고가 숏 커버링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며 지수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우리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끈 외국인 순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 이후 7조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신흥국 대비 상대 EPS가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며 2011년 이후 평균 +2표준편차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반면 추가 상승은 이에 못 미치면서 신흥국 대비 12개월 선행 P/E는 2011년 이후 평균 -2표준편차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해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중국 A주의 MSCI EM 편입 가능성,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시장은 약제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및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따른 KOSPI의 사상 최고치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및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따른 KOSPI의 사상 최고치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개선 기대와 구조적 내수 부진의 상충

연내 국내 채권시장은 2분기 바닥을 다진 후 하반기 약보합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 하락을 이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후 국내 통화정책 기대 감소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형성되고, 대내외 경기 개선 기대가 유지되면서 금리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대는 3분기까지 금리를 박스권에 묶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부채와 일자리 추경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제 공약을 기반으로 보면, 연내 통화정책은 시행되기 어렵고 재정정책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규제 완화와 맞물려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도 이미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국내 시중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내 통화정책은 경기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일 것이며, 시중금리는 자연스레 우상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화정책이 어렵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은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이다. 유일호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낮게 일축했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경이 추경 편성의 기본 여건에 비해 미달인 것은 걸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정부 설립 과정에서 경제팀 교체와 더불어 일자리 추경은 젊은 층을 공략한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중 가장 먼저 착수될 공산이 높을 것이다.

### 하반기 경기, 약보합 예상

현재 세계잉여금 8조원과 세수 여유분 등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취임 직후 빚잔치라는 여론을 의식해 10조원 중반 이상의 슈퍼 추경을 내놓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추경이 시행되더라도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정부 정책은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 외에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경기는 대외 경기에 비해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인하 기대 소멸과 동시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보

### 과거 추경 편성 내역

시행년도-차수	규모(조 원)	추경편성내역
1998-1	1.4	세입결손 보전, 금융구조조정 지원
1998-2	13.9	세입결손 보전 및 실업/경기 대책
1999-1	0.8	실업대책 및 취업구조조정 지원
1999-2	2.7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 재해 지원
2000	2.3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및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관련 소요
2001-1	5.1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및 의료보호 지원,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2001-2	1.6	SOC 등 건설투자, 수출 중소기업 지원, 쌀값 안정 지원, 911 테러사태 지원
2002	4.1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3-1	4.5	SOC 등 건설투자, 서민 중산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2003-2	3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4	2.5	세입결손 보전 및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2005	4.9	세입결손 보전 및 의료 생계급여 부족분,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 매입비 지원
2006	2.2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8	4.6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2009	28.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민생안정대책
2013	17.3	세입결손 보전 및 민생안정,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대책
2015	11.8	메르스 대응, 가뭄 및 잠마대책 등
2016	11.0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유자산 축소 불안감 등으로 단기금리는 하단 경직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게다가 당초 우려했던 만큼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출 지표 반등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호조는 하반기 금리 상승 동력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경기의 의구심이 기대로 바뀌기까지는 시일과 증거가 필요하며, 트럼프 재정정책 불안과 사드(THAAD)를 둘러싼 입장 차이 등은 틈틈이 안전자산 선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유가 기저효과 소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과 국내 내수 부진의 고착화 등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연내 시중금리는 약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WIN CLASS



##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로 수익과 절세를 한번에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  
바로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이다. 정부가 해외 투자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해외 투자를 이루도록 하자.

글. 이미경 IBK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VM팀장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도입한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는 해외 상장주식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평가손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전용계좌는 2017년 12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납입원금 3,000만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투자자들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Must have'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1 투자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투자에 앞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2018년 1월부터는 기존에 가입했던 펀드 외에 새로운 펀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2017년도까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나라도 가입했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상황이 나빠져도 투자한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2018년도 전까지 다양한 국가의 펀드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10년 내내 호황만을 누리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만 보더라도 2014년 동남아, 2015년 중국,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미국 등 매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상승하는 지역은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에 대해 10년 동안 '계속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여 환매할 당시 증시가 저점이 되면 비과세 혜택은커녕 투자한 원금에도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2017년도 말까지 다양한 상품에 가입을 하여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이 비과세 해외주식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2 비과세 혜택을 상세히 알아두자

해외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매매손익, '환헤지' 손익, 배당수익 등 다양한 과세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과세항목은 매매·평가손익과 환차익뿐이다.

그 외에 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배당, 채권 등 이자, 해외상장주식 이외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및 환헤지에서 발생하는 손익 같은 과세대상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과세항목은 매매·평가손익과 환차익뿐이다. 그 외에 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배당, 채권 등 이자, 해외상장주식 이외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및 환헤지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은 과세대상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3 H(헤지)와 UH(언헤지)의 차이점을 알고 투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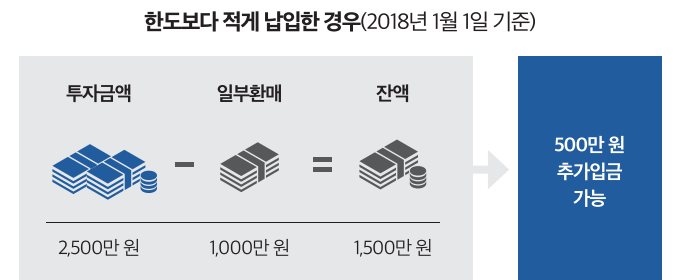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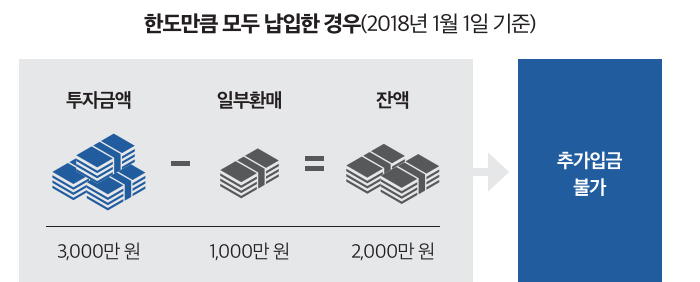
'비과세 해외주식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동일한 펀드명이지만 H(헤지)와 UH(언헤지)와 같은 유사한 표기방법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해외투자를 할 때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선진국의 경우 환율에 변동이 큰 편이 아니지만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환헤지를 하면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H와 UH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H(헤지)	UH(언헤지)
투자국가 통화까지 상승	환차익 누리지 못함	환차익만큼 이익 증가 (환차익 비과세)
투자국가 통화까지 하락	환차손 방어 가능 (환헤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환차손 방어 불가능

표에서와 같이 시장 환경에 따라 환헤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시장 흐름에 관심이 많아 환율까지 고려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H를 선택하고, 투자성향이 보수적이고 환율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H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한도관리에 대해서 알아두자

2017년 12월말까지 가입한 펀드들을 환매하거나 인출을 해도 한도는 처음 설정했던 금액만큼 생성이 된다. 쉽게 말해 가입 시 한도 내에서는 펀드를 환매 혹은 인출해도 그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환매나 인출을 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처럼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계좌'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한다면 다양한 해외 지역들의 주식과 더불어 비과세 혜택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WIN CLASS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가입기간 : 2017.12.31까지
- 가입대상 : 거주자 (법인가입불가)
- 납입한도 : 납입원금 1인당 3천만원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과세 제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비과세 아님)
- 세제혜택 기간 : 가입일로부터 10년



#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어휘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세금 납부를 실천하도록 하자.

글: 강형규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 다르며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 주소 · 거소 개념

주소(생활의 근거되는 곳)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보기에 약하지만 장기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란 주소지 외에 장소 중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1년 또는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관광,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입국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일 때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 사례

비록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적·경제적 중심지를 국내에 두고 있고, 본인과 그 가족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본인과 그 가족이 국내 소유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그 본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A법인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 B를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기간(5년) 동안 B와 그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도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한국 예금계좌로 송금할 때 B는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본인이 지난 5년 간 국내체류 평균기간이 56일 정도이며 국내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나 국내에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부모가 국내에 소득과 부동산 등이 없고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 본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일상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미군 및 그 가족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생활의 근거, 직업, 자산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세금 부담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6억, 성인인 자녀가 5천 만원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국내재산을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도 받지 못하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 두 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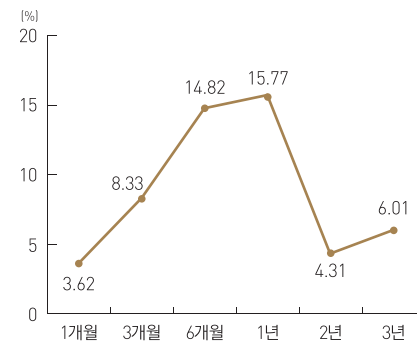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 관계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국과 외국 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조세조약을 통해 한 나라(거주지국)의 거주자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두 나라의 이중 거주자일 때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① 항구적 주거지
-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 중심지
- ③ 일상적 거소지
- ④ 국적
- ⑤ 상호합의



### 국내주식형

#### 한국밸류 10년 투자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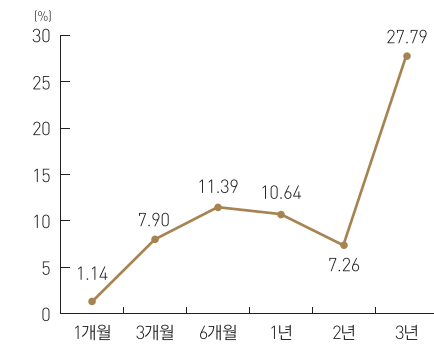
- 대형가치주와 중소형가치주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가치주의 높은 투자비중으로 양호한 성과 전망

##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자료: IBK기업은행 개인상품부 투신상품팀 (펀드 스펙트럼, 5월 8일 기준)

###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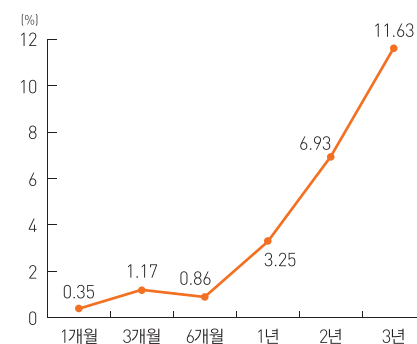
#### 한국투자 중소밸류



- 중소형가치주 발굴 투자, 특정한 기업이나 업종에 쏠림 없이 저평가 중소형주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호한 성과 기록
- 신정부 출범이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기대감, 최근 중소형 업종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저평가 매력 상승

### 해외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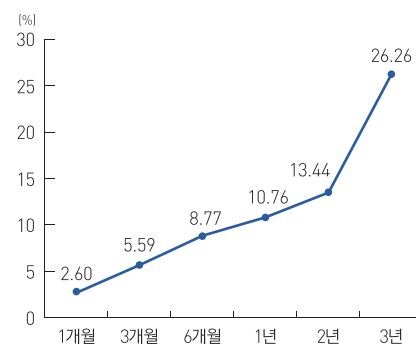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 전세계 채권에 고른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 추구
- 높은 신흥국 국제/회사채 비중으로 인해 향후 신흥국 경기안정기에 수익률 강세 예상

###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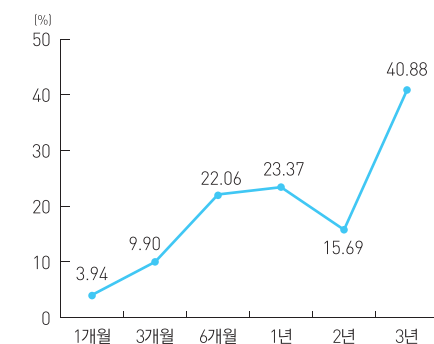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 고배당주, 콜옵션 매도전략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복 없는 수익률 확보
- 국내 기업들의 현금배당을 상향 양호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 양호한 펀드 성과 흐름 유지될 것

### 해외주식형

#### 슈로더유로



-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유럽의 대형 우량주에 투자
- 경제지표 회복 및 프랑스 대선이후 정치 리스크 감소로 유로지역 증시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PREMIUM CLASS

---

품격 있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여행·교양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100세 시대

## 이제는 무형자산을 쌓아야 할 시기다

올해 태어난 우리나라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107세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를 넘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있다.

10년 후에는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700만 명이 65세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이제 우리에게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현문학 매일경제 중부본부장



###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길 현실에서 행복을 찾다



기대수명이 5년에 두 배씩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도 향상된다면 그것은 축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수명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 삶의 질은 정반대로 악화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단순한 수명연장을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행복감과 연결된다. 행복을 찾는 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대부분의 불행은 본인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때는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너무나 당연시했던 가족이 곁에 없거나, 아끼던 물건이 사라진 뒤에서야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다. 가진 물건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을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지닌 정복욕과 소유욕구도 불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필요함'으로써 불행을 겪는 것이다.

한 종편 채널에서 방영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은 산중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주인공들은 심중팔구 가진 것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관조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한마디로 물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만족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소유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한 발 떨어져 생활함으로써 관조와 무소유의 행복을 느끼는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프로그램 속 주인공들처럼 극단적인 생활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세는 100세 시대를 위해 본받을 필요가 있다.

# 100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절약과 소비의 적절한 균형**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다.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질수록 그 비중은 높아진다. 퇴직 전에 비해 절반의 소득을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40년 간 월급의 25%를 저축해 놓아야 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절제와 절약은 10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공공기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에 필요한 학비 또한 굉장히 저렴하다. 건강 보험을 활용하면 진료비 또한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을 소비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절약은 분명 100세 시대를 위해 필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절약은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2020년까지 700만 명이 은퇴하게 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에 부모에게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이지만 자녀와는 떨어져 사는 첫 세대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나머지 돈이 있어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한다. 돈이 충분히 있어도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늘 고독하고 적막하다고 한탄한다. 절약을 통해 많은 돈을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쓸모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돈은 행복을 위해 쓸 때 그 가치가 발현된다는 명언을 떠올려 본다. 내일을 위해 절약하는 습관과 오늘을 즐길 줄 아는 태도의 적절한 균형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미덕일 것이다.

**유연한 사고로  
현역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은퇴한 70대 남성이 인턴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다. 주인공으로 출연한 로버트 드니로는 그 나이대만이 가질 수 있는 관록과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돼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을 펼쳐 나간다.

이는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70~80대까지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물론 힘을 쓰거나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 중에도 경력과 관록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100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과 '은퇴'의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은퇴를 하더라도 30~40년 이상의 삶이 남아있기에 다시 '현역'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전공을 이어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길이든 방향을 정하면 젊은 시절 못지않은 부푼 꿈이 생긴다.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부 및 사회기관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기 쉬운 사고를 유연하게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 변화와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우울함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 자신감이 사라지고 성격도 내향적으로 바뀌게 된다. 예전과 달리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며 몇몇의 경우에는 융통성이 줄어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독불장군 혹은 무사인일주의자로 비쳐지곤 한다. 이는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셈이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보이게 된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제 2의 인생을 개척한다면 자존감과 자신감은 절로 생길 것이며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00세 시대의 동반자  
가족과 친구**



미국 미시간대 심리학에서 100명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4년 후 생활을 추적한 결과 본인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평균 친구 수는 16명이었다. 불만족하다고 한 사람들의 친구 수가 10명 미만인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처럼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적인 지지도는 퇴직자의 즐거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노년기에는 특히 다른 시기보다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자식의 독립과 사회생활 은퇴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기에 외로움은 늘어난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0세 시대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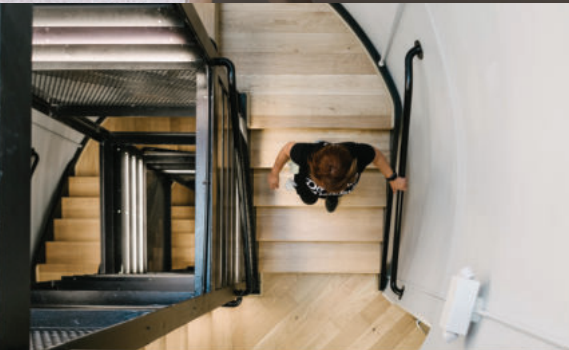
캘리포니아대학교 하워드 프리드만 교수는 99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만족스런 사회적 관계와 풍부한 사교 생활을 즐긴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한 캐나다 작가인 J. 어니 켈린스키는 '은퇴 생활 백서'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만 쫓고 우정을 멀리하는 풍조를 꼬집는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에는 귀속감 있는 단체에서 봉사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우정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다만 우정은 명사가 아닌 동사인 만큼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시간과 노력이다. 그래야 돈보다 귀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년에 친구는 예전과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중년기부터 100세 친구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요즘은 가족과 대화로 푸는 소통법이나 이웃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 인맥관리를 할 수도 있다. 휴먼 네트워크는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은 생산적인 무형자산에 속한다.

나이가 개인의 경험과 취향을 가미해 개인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도 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늙는다는 것은 매우 공평한 자산이다. 젊은 시절의 고운 얼굴을 100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신은 신체보다 맑게 유지할 수 있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거부감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무형자산을 쌓아가는 여유를 가질 날을 기대해본다. WIN CLASS







## 사무실에 알파를 더하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WeWork)

글. 윤수경 서울신문 경제정책부 기자 사진. 위워크(WeWork) 제공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위워크

‘부동산 업계의 우버’라고 불리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포브스(Forbes) 추산 12조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위워크(WeWork)다. 위워크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중국 등 전세계 14개국 44개 도시에 138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다. 위워크의 가장 큰 역할은 도심 내 입지 좋은 곳에 사무공간을 빌리고 그곳을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무실 ‘전전세’ 사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공간을 나눠준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멤버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위워크의 진짜 서비스다. 위워크는 단순한 사무 공간, 그 이상을 제공한다. ‘멤버’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델타, IBM, GE, 삼성 등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전세계 1만여 개 멤버사와 9만여 명 이상의 멤버가 위워크와 함께하고 있다.

위워크는 2010년 뉴욕 소호 지역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애덤 노이만(Adam Neumann)과 미구엘 맥켈비(Miguel Mckelvey)가 함께 위워크를 설립했다. 최고경영자 애덤 노이만은 위워크 설립 이전, 유명 아동복 브랜드의 공동설립자 및 경영자였다. 그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업무환경을 구현해냈다. 미구엘 맥켈비는 위워크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다. 디자이너이자 기업가인 그는 건축 설계, 건설 관리,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위워크에 반영했다.

위워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호점인 ‘위워크 강남역점’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호점인 ‘위워크 을지로점’을 열었다. 을지로점의 경우 아시아 최대 규모로 10개 층, 3,000명이 수용 가능하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3호점인 위워크 삼성역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 공간 모두 서울 내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공간

위워크의 공간은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다. ‘핫 데스크’, ‘전용 데스크’, ‘프라이빗 오피스’ 등이다. 핫 데스크란 가장 저렴한 자리로 구역 내 선호하는 자리에서 제공된 데스크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노트북만 가져오면 빈자리를 택해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 전용 데스크는 자신만의 지정 좌석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사무기기를 매일 옮길 필요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라이빗 오피스는 다양한 인력 규모

위워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호점인 ‘위워크 강남역점’을 시작으로 올해 2호점인 ‘위워크 을지로점’을 열었다. 을지로점의 경우 아시아 최대 규모로 10개 층, 3,000명이 수용 가능하다.



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워크는 공간에 지역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 한 도시 내에서도 여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강남역점은 1,000명 수용 가능한 10개 층 규모로 조성됐다. 강남역점의 디자인 콘셉트는 강남이 세계적인 패션과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매우 젊고 활기찬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페인트를 통해 사람들이 위워크 안을 확보할 때 속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했다. 국내 아티스트인 ‘제바(Xeva)’, ‘헨 김(Henn Kim)’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을지로점은 한국의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명동의 역사와 상징성이 담겼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업무 환경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공존하고, 멤버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도시 속 아지트가 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비즈니스맨 콘셉트’를 채택한 층에서는 포부 넘치고 성숙하며 깔끔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빌리버 콘셉트’ 층에서는 고요하고 차분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아티스트 콘셉트’를 택한 층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예술적인 감각이 넘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투어리스트 콘셉트’ 층은 유동적이고 글로벌하고 탐험심이 넘치는 활발한 분위기로 디자인됐다.

삼성역점에서는 멤버들 간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독특한 공용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지하에 넓은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꾸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멤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멤버들의 편의를 위해 포토 스튜디오, 강의실, 수유실 등 다양한 공간을 더했다.



**세계 최대 협업 공간,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위워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위워크를 세계 최대의 협업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워크는 멤버들을 위해 다양한 공식, 비공식 이벤트를 제공한다. 또 다른 특징은 멤버들에게 각종 업무 지원 서비스는 물론이며 교육과 트레이닝을 지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10만여 명의 멤버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위워크는 국내에서도 괄목할만한 수준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위워크 강남역점은 4개월 만에 거의 모든 좌석을 채웠으며, 을지로점에는 아모레퍼시픽, 마켓컬리,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인 N15 등,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문을 두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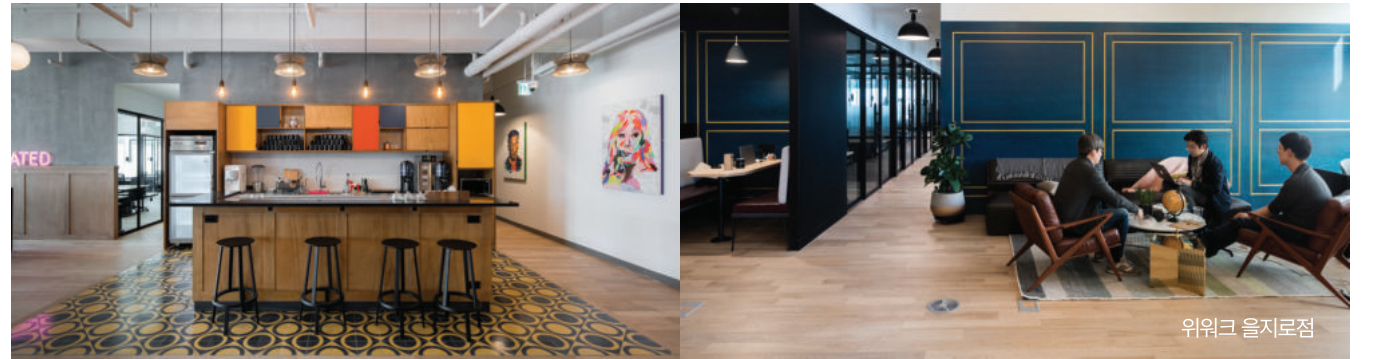
최근에 위워크는 스타트업 요람 역할까지 자청하고 있다. '미션 파서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미션 파서블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들이 위워크 플랫폼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프라이머, 케이큐브벤처스, 500스타트업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워크는 지난해 7월 위워크 브루클린 하이츠 지점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마이애미, 홍콩 등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워크 강남점

최근에 위워크는 스타트업 요람 역할까지 자청하고 있다. '미션 파서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미션 파서블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들이 위워크 플랫폼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프라이머, 케이큐브벤처스, 500스타트업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위워크 을지로점

**위워크 아성에 도전하는 또 다른 공간들**

**-스튜디오 블랙, 패스트파이브, 스페이스코웍**

현대카드의 '스튜디오 블랙'과 패스트파이브, 스페이스코웍 등 '국내산' 공유오피스들도 위워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 '스튜디오 블랙'을 통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했다. 스튜디오 블랙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홍우빌딩2'를 8층부터 12층까지 사용하며 총 620석을 제공한다.

디자인은 '겐슬러'라는 세계적인 디자인 업체에게 맡겼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를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천장의 프레임을 과감하게 노출하고 노출 콘크리트를 썼다. 블랙 철재, 나무의 조합이 인상적이다. '커넥팅 라운지', '수면 캡슐', '샤워실', '포토스튜디오', '목업룸(3D 프린터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튜디오 블랙은 한 달에 한 번씩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 입주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연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설가 김영하 씨가 초대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입주사가 만든 제품을 찍거나 필요한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퀵서비스와 택배, 세탁 업무까지 도와준다. 현대카드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스튜디오 블랙에 입주한 회사들은 해외 출장 시 현대카드 제휴 여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인프라서비스팀 창업지원 센터장은 "현대카드는 공유 오피스업 자체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기존에 현대카드 직원들이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스튜디오 블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파이브'는 2015년 4월 서초점을 시작으로 현재 교대, 역삼, 논현, 삼성, 선릉 등 강남 일대에 총 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500개 업체, 1,500여 명이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삼성역 도심공항타워에 오픈한 삼성점이 한 달 만에 모든 공간이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패스트파이브 멤버들은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7개 전 지점의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2년 간 200여 건의 커뮤니티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5일당 한번 꼴로 네트워킹 런치, CEO 소모임, 와인 소모임 등이 진행된 셈이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창업 초기에 잠시 스쳐 가는 공간 정도로 인식됐던 패스트파이브가 이제는 일반 오피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전속 세무사 서비스, 스타트업 대표 모임 등 앞으로 각종 부가서비스,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유 오피스가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스페이스코웍(Space co-work)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전북혁신점, 전남혁신점, 전북도청점이 운영된다. 스페이스코웍은 벤처캐피탈회사, 소셜클라우드펀딩회사, 광고전문가, 법률자문, 세무회계서비스, 경영컨설턴트, 소셜미디어 전문가, 앱 개발자, 홈페이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제휴를 확대하여 창업이나 경영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창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유 오피스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인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소규모 오피스를 임차하기 쉽지 않은데다 집기 구매 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 비중이 늘면서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공유 오피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IN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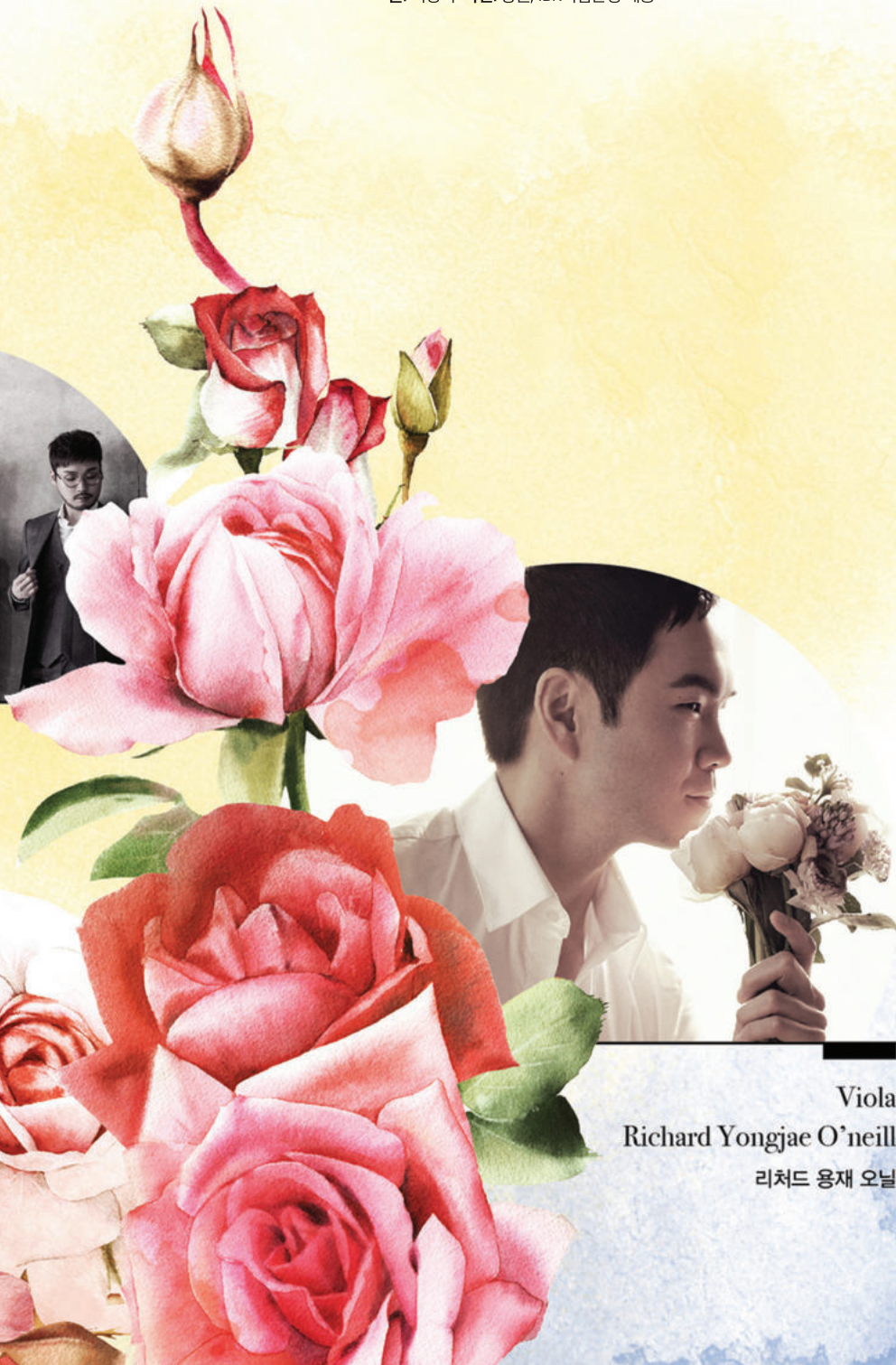
# 사랑과 감동의 하모니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우리나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국가경제  
융성에 이바지하는 IBK기업은행은 문화의 강한 힘을  
믿는 기관이다. 이는 나날수록 커지고 지친 일상에  
힘을 불어넣어주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IBK기업은행이 올해도 변함없이 마련한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그 뜨거웠던 현장을 찾았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IBK기업은행 제공



Phantom Singer  
Forte Di Quattro  
팬텀싱어-포르테 디 콰트로



Viola  
Richard Yongjae O'Neill  
리처드 용재 오닐

## IBK기업은행, 귀한 고객들을 초대하다

5월 18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앞에는 반가운 인사와 웃음소  
리가 가득했다.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초대한 고객들을 일일이  
맞아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느라 너나할 것 없이 분주했  
기 때문이다.

매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해온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는 언제나 좌석이 모자를 정도로 성황을 이뤘은 IBK기업은행의  
고유한 문화행사로서 올해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가장 핫한 스타로 떠오른 팬텀싱어의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를 초청함으로써 더 큰 화제를 모았다.

저녁 8시가 되자 IBK기업은행 홍보 영상이 무대 스크린에 떠올  
랐다. 고객을 위한 IBK기업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부터 새로 모델  
이 된 배우 이정재의 광고영상이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1부의 시작을 여는 디토체임버오케스트라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속  
에서 입장했다. 오프닝 곡은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  
품 22 중 2악장', 리처드 용재 오닐과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연주자들답게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선율로 출발부터 관  
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어서 리처드 용재 오닐이 등장하자 관객석에서는 터질 듯한 박  
수와 환호소리가 터져 나왔다.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로 첫 활  
을 그는 그가 마치 춤을 추듯 선율 위에서 노닐고 객석의 관중들  
은 모두 그의 몸짓과 연주에 홀린 듯 집중한다. 마지막 음이 끝나  
자 다시금 열띤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

근사한 드레스를 입고 나온 사회자는 관객들의 환영에 환한 미소  
를 보이면서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열린 마  
음으로 함께 즐겨줄 것"을 주문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객석에서 관객들과 함께 관람을 하고 있었던 배용덕 부  
행장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배용덕 부행장의 모습을 보고 객석에서는 반가운 웃  
음이 터져 나왔다.

## 리처드 용재 오닐이 들려주는 진한 감동의 무대

다음 곡들은 '사랑'이 주제였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브루  
크펠러의 '녹턴-안단티노',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가 연달아 흘러  
나왔다. 무대에 나온 리처드 용재 오닐이 호흡을 가다듬더니 다  
시 활을 든 손을 올린다.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아름다운 선율  
에 관객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오닐 연주 특유의 비감한 슬픔에 모  
두가 차분히 젖어 들어간다.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는 악



기 비올라가 울리는 사랑의 감정에 모두가 옛사랑과 현재의 사  
랑을 추억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준비한 마지막 레퍼토리는 피아솔라의 '오블  
리비온'과 '위대한 탱고'였다. 탱고 음악의 거장인 피아솔라 곡들  
은 다양한 영화에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곡이  
기도 하다. 디토체임버오케스트라와 리처드 용재 오닐의 호흡이  
기대되는 무대였다. 탱고 특유의 관능적인 선율에 과감한 불협화  
음과 리듬감이 돋보이는 두 곡이 관객들을 저 멀리 아르헨티나  
로 데리고 간다.

마침내 두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가 울  
려 퍼진다. 감동을 이기지 못한 몇몇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  
고 덕분에 리처드 용재 오닐은 몇 번이나 무대로 불려나왔다. 마  
이크를 잡은 용재 오닐이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자리  
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인사를 전하자 박수소리가 더 커진  
다. "IBK체임버홀은 본인이 베토벤을 연주한 소중한 곳"이라며  
이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인연을 이야기한 용재 오닐은 마지막 앵  
콜곡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 왈츠를 연주한 뒤 관  
객들의 박수소리를 받으며 앵콜 무대를 마무리 지었다. 장시간  
의 인터미션 시간에도 오닐이 전해준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관  
객들 모두가 기쁜 듯 웅성거리며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힘을 다  
시금 실감한다.



**여심 저격, 포르테 디 콰르토를 만나다**

2부가 시작되자 관객들, 특히 여성관객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포르테 디 콰르토의 무대를 드디어 보게 된다는 설렘 때문이다.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으로 통해 매머드급 스타로 거듭난 포르테 디 콰르토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등장하자 천정이 흔들릴 듯 박수소리가 터진다.

제일 먼저 들려준 곡은 '오디세아'다. <팬텀싱어> 결선 무대에서 천상의 하모니라는 극찬을 받으며 기립 박수를 이끌어 낸 곡으로 역시나 식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다. 생상스의 첼로를 주인공으로 한 관현악곡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테 스텔라타', 영화 <시네마천국>의 메인테마곡인 '시네마 파라디소'가 이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네 명의 싱어들이 작은 꽃다발을 꺼내 맨 앞줄 객석 여자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 공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오늘 하루가 모두의 가슴에 길이 남을 추억으로 아로새겨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포르테 디 콰르토는 '단 한 사람'과 이번 정규앨범에 실린 '판타즈마 디 아모레' 그리고 앵콜곡 '아디지오'를 끝으로 웅장한 무대를 마무리 지었다. 리처드 용재 오닐 때와 마찬가지로 기립박수와 환호가 그치지 않았다. 객석의 관객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온 서한숙 씨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크로스 오버된 오늘 공연이 정말 좋았다. 리처드 용재 오닐 씨는 클래식 음악 연주가로서 워낙 우리에게 친숙해서 좋았고 인기 있는 팬텀싱어 우승팀까지 예술의전당 홀에서 본 것이 무척이나 의미 있었고 즐거웠다”며 IBK기업은행이 마련한 콘서트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렇게 특별히 초청된 600여 명의 VIP 고객과 더없이 훌륭한 음악을 선보인 뮤지션들로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물론 무대 위의 포르테 디 콰르토까지 공연장에 자리한 모두를 감동시킨 무대임에 틀림없었다.

아쉬운 표정으로 나가는 관객들을 또 한 번 감동시킨 것은 문 옆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외친 IBK기업은행 직원들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쓴 직원들에게 관객들은 덕분에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며 덕담하고 직원들은 이에 보람찬 미소로 답한다. 음악으로 하나 되고 감동을 나눈 모두의 얼굴에서 더없는 행복이 읽혀진다.

모든 음악의 본질은 사랑이다. 뮤지션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담아 음악을 만들고 관객은 음악을 통해 전달받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린다. 사랑은 음악을 타고 퍼져나간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오늘 하루처럼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것이다.

음악 속에 담긴 사랑과 그 사랑을 널리 베풀려는 마음으로 기획된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해마다 거르지 않고 음악으로 고객 사랑에 꾸준히 보답해 온 IBK기업은행. 음악의 감동과 위대함을 믿는 힘의 파장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두가 기대해 볼 일이다. WIN CLASS



포르테 디 콰르토



리처드 용재 오닐



## 음악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름답다

지난 5월 18일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나눔 콘서트'

현장은 공연 시작 전부터 안팎으로 시끌벅적했다. 일찌감치 몰려든 관객부터

공연을 준비하는 아티스트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커다란 선물꾸러미를 앞에 둔 아이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분주했기 때문이다. 매해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온 IBK기업은행의 초대를 받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공연 시작 전에 무대 뒤에서 만나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IBK기업은행 제공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 오늘과 앙상블 디토 그리고 IBK기업은행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 왈츠'의 선율이 IBK챔버홀을 가득 메운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무대에서는 리처드 용재 오닐과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이 진행 중이다. 오래도록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지만 리허설만큼은 언제나 깐깐하고 꼼꼼하다.

리처드 용재 오닐이 "Just watch" 라고 말하며 직접 연주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단원들의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체크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시니컬하게 하자"며 곡의 느낌을 북돋는다. 그러는 와중에 몇 번이나 웃음이 터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강한 유대감은 공연장 전체를 아주 진하게 물들인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 걱정 어린 표정을 한 채 대기실로 들어섰더니 이제 막 옷을 갈아입은 리처드 용재 오닐이 환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한다. 워낙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이는 그인지라 근황을 먼저 물었다.

"최근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 런던에도 갔고요. LA에 있는 'The Broad'라는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The Broad'는 세계 최고의 콘서트 스테이지들을 갖춘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에요. 얼마 전에는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처음으로 연주회를 했습니다. 부족함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눈을 뜨며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전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에게 오늘 공연은 무척이나 특별하다. IBK챔버홀이라는 멋진 공연장부터 문화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회에 대한 의미, 관객들의 열정까지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소중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에 IBK챔버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세계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무대 중 하나였어요. 당시 '베토벤 현악 사중주곡(Beethoven String Quartet)' 전 악장을 연주했는데 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IBK기업은행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의미 있는 공연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BK챔버홀이 생기기 전부터 서울을 오갔지만 이 곳은 제가 본 많은 콘서트홀 중에서 손꼽히게 훌륭한 공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곡들을  
관객들에게 선물할 터**



그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 덜 대중화된 비올라라는 악기로 오랫동안 스타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래미상 2개 부문 후보 지명,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 수상, 놀라운 음반 판매량, 미국 UCLA 최연소 교수 등 벽차고 다양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한국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연주자이기도 했다. “저는 제가 연주하고, 공유하는 음악이 관객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면 좋겠어요. 사실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거든요. 파티에도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1대 1로 나뉘요. 이런 성격에 어두운 공연장에서 수많은 관객들 앞에 선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

난 수년 간 만났던 분들이 말씀하시길 제 공연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얻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한 번 음악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멋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객들 역시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늘 그가 IBK기업은행 콘서트에 선보일 곡들은 총 6곡이다.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브루크필러의 ‘녹턴’,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그리고 피아솔라의 탱고 곡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할 곡들 대부분을 직접 선택했어요. 특별한 관객들을 위한 공연이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초창기 앨범에 수록된 곡들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피아졸라의 탱고로 공연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이 리스트들은 지난 몇 년 간 투어 때 공연한 것들이



의 배려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지금은 여러 상황들이 괜찮아져 삶을 즐기고 있지만 저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한 태초부터 사람들이 받던 고통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에 깊이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요. 이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전 모든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행동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무언가’라도 하면, 분명 변화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개인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얼마 전 JTBC 프로그램의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언제 어디서나 용기를 낼 것을 당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가 비올라를 만난 건 일종의 우연 혹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친구들과 연주하면서 놀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연히 소파 위에 비올라가 놓인 것을 발견했던 것. 그는 그것을 집어 연주를 해봤고 그 모습을 본 비올라를 연주하는 친구는 “내려라. 별로인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사실 제 귀에도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엄청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어? 이거 마치 나 같다. 소리가 마치 나처럼 들려’ 하는 그런 느낌?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올린 소리보다도 더 낫다고 느꼈어요. 아직까지도 비올라를 들어 올릴 때마다 드는 느낌이 있어요. 나한테 딱 맞는다(it fits me).” 리처드 용재 오닐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짧지만 진중한 인터뷰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났다. 그리고 저녁 8시, 다시 무대에서 만난 그는 수줍고 내성적인 어른이 아닌, 관객들에게 살아있는 느낌을 들게 하는, 좋은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준비를 마친 작은 거장의 모습이었다. 2017년 5월 18일 늦은 밤, 리처드 용재 오닐 들려주는 비올라의 선율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순간을 보냈다. WIN CLASS

라 제게는 애정 가득한 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관객들에게 선물하며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눈빛이 아이처럼 반짝인다.

**기부하는 삶,  
나누는 삶**



비올리스트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쉽 없는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용재 오닐이지만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강연을 다니거나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만나 음악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연으로도 충분히 바쁜 일정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동기(motivation)가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 있는 동안 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제게는 타인에 비해 주어진 기회가 많았어요. 사람들





# 현대인을 옥죄는 정신병, ‘강박증’을 말하다

강박이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강하게 집착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박증에는 지속적인 성적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혹은 반복적인 손 씻기와 정리 정돈에 대한 집착 등이 있다.

이러한 강박증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현대인이 강박에 시달리는 이유

강박증을 야기하는 불안의 원인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나 충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밖으로 나올까 걱정을 하게 된다. 거의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이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가령, 성적인 욕구의 표현은 매우 제한적이고, 분노의 공격적 표현도 대개는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압한다. 그러나 억압이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가 표출될까봐 강박적으로 불안해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욕구를 확대하는 자극이 도처에 놓여 있다. 수많은 종류의 성인물, 성을 매개로 한 유흥업소, 심지어 TV 프로그램과 광고까지도 우리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머리는 늘 성에 대한 사고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집착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욕구가 튀어나올까봐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성적 욕구 외에도 진학, 취업, 성공 등에서 좌절을 겪는다. 이러한 좌절은 사람들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그런 공격성의 표출에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강박증의 또 다른 원인을 사회적 학습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나 평가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본인이 추구하고 원하는 삶의 기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행위의 기준도 모두 보고 배운 것이다. 가령,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애인을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때야 하는지 배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취업을 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생각을 끝없이 하면서,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강박적으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의 과도한 발달로,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취업에 필요한 스펙, 결혼을 위한 경제적, 직업적, 신체적 조건, 노후에 필요한 준비, 자녀양육과 진학에 필요한 경제적, 교육적 요소 등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됨으로써 비현실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모적인 강박행동으로 내몰리게 된다.



## 강박증을 이겨내는 방법

강박증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성적인 욕구처럼 우리의 욕구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자극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인공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 이러한 자극은 우리를 과도하게 성에 민감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러한 욕구에 집착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과도한 성욕으로 불안해하거나 그러한 욕구의 좌절에 따른 공격성 그리고 그 공격성의 불법적 표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존재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어떠한 심리적 자세로 추구하는가이다. 강박증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목표가 삶의 중심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자신은 부정해서 없애야 할 대상이다. 이때 자신의 존재적 가치나 의미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의 어떤 상태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 특히 불완전하고 이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의 자신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현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목표를 추구할 때 과도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박증이란 불안에 따른 반복적인 사고나 행동인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고나 행동은 강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다. WIN CLASS



##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만나다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는 단연 발리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연 30만 명 안팎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이 발리를 찾는다. 한국 여행자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곧 발리인 셈이다. 하지만 눈 밝은 여행자들은 북적이는 발리를 피해 옆동네를 찾는다. 발리에서 비행기로 30분, 페리로 2시간 떨어진, 순다(Sunda)열도에 자리한 롬복(Lombok)이다. 오래전 상업화 된 발리와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문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 최갑수 여행작가

Indonesia



### 낮선 문화의 섬, 롬복

롬복은 생각보다 크다. 제주도의 2.5배 정도 면적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서쪽에 자리한 썬기(Senggigi) 해변.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진 곳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해 레스토랑과 숭이 많이 들어서 있어 활기가 넘친다. 섬 한가운데 해발 3,726m의 화산 구릉 린자니(Gunung Rinjani)가 위용을 뽐낸다. 인도네시아에서 5번째로 높은 산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1월 분화를 했다. 당시 상공 3km까지 화산재가 솟아올라 롬복 공항은 물론이고 이웃 섬 발리 공항까지 폐쇄됐다. 1257년에도 초대형 폭발이 있었다. 이때 산 정상 500m가 통째로 사라져버렸고 당시 분출된 화산재가 몇 년간 지구 상공을 덮어 '작은 빙하기'가 도래했다는 기록도 있다.

롬복은 발리와 지척이지만 여러 모로 다르다. 발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드물게 힌두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롬복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 롬복은 19세기 초 발리의 통치를 받기 이전까지 마타람 이슬람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주민 대부분이 말레이 계통인 사삭족이다. 롬복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비롯해 발리의 힌두교 문화, 토착신앙 등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롬복 공



항을 빠져나오면 시골스러움과 순박함에 놀라게 된다.

길거리에는 오토바이, 승용차와 함께 여전히 마차가 다닌다. 치도모(Cidomo)라고 부르는 이 마차는 롬복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 수단으로 롬복 사람들은 이 마차를 우스갯소리로 '롬복 페라리'라고도 부른다. 롬복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도모를 승용차 대용으로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롬복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곳은 사삭 빌리지(Sasak Village)다. 사삭족은 롬복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주민으로 발리인들 보다는 자바인들과 흡사한 외모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사삭 빌리지에서는 사삭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현장을 관람하고, 전통의상과 도자기, 약기 등을 손수 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현재 150가구 700여 명의 사삭 주민이 대나무로 벽을 세우고 바닥은 소똥으로 칠한 전통집 루마 아닷(Rumah Adat)을 짓고 살고 있다. 바닥은 일주일마다 소똥을 덧대는데 이렇게 하면 모기가 들어오지 않고 먼지가 나지 않는다. 충격적인 사실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친척이라는 사실. 사삭족은 오직 마을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4촌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마을 바깥 사람과 결혼을 하면 벌금으로 소 1~2마리를 내야한다.

### 전 세계 서퍼들의 성지, 쿠타 해변

롬복 중부지역의 끄디리(Kediri)에 있는 토기 마을 바뉴물렉(Banyumulek)도 가볼 만하다. 게라바(gerabah)라고 불리는 전통 질그릇을 만드는 마을이다. 아주 원시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지만 문양과 색깔이 무척 화려한 것이 특징. 이 마을에서는 세 집에 한 집 꼴로 게라바를 만들며 성인 인구의 80%가 토기 생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토기는 모두 수공업 형태로 사람이 직접 빚고 말린 뒤 색을 입히고 문양을 새겨 판매가 되는데, 관광객도 토기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다.

수카라레(Sukarare) 마을은 전통 직물로 유명하다. 약 150 여 가족이 모여 사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전통 베를 이용해 천을 짠다. 다양한 색의 실과 패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천은 화려한 문양을 자랑한다. 롬복에서는 결혼식 파티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이 직접 짠 천을 선물해 주는 것이 전통으로 어른들은 여자 아이들에게 직물을 짤 수 없다면 시집을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다. 보통 혼자서 1.2m×2m폭의 직물을 만드는데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정성이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다.

롬복 남쪽에는 근사한 해변이 많다. 특히 탄중 안(Tanjung Aan)







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곳이다. 해변 서쪽에 자리한 낮은 언덕에 올라서면 절벽에 둘러싸인 원형의 만이 내려다보이는데, 이곳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 속 또한 아름답고 신기하다. 스노클링을 하며 여러가지 색깔의 물고기와 산호를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쿠타(Kuta) 해변은 발리의 쿠타 비치와 이름은 같지만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쿠타 해변은 세게르(Seger) 해변과 이어지는데 롬복을 찾은 서핑 마니아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파도가 서핑을 하기에 적당해 아침부터 밤까지 세계 각국의 서퍼들로 붐빈다.

### 천국의 또 다른 이름, 길리

롬복 북서쪽에 작은 섬 세 개가 나란히 떠 있다. 흔히 길리 섬이라고 부르는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길리 멘노(Meno), 길리 에어(Air)가 주인공이다. 길리 삼형제로 구성된 길리 군도는 '지구 상에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섬 베스트 3'(영국 BBC 방송), '세계 10대 최고의 여행지'(론리 플래닛) 등에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원래 '길리'는 '작은 섬'을 뜻하는 롬복 말로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작은 섬들은 대부분 길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섬 가운데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길리 트라왕안이다. 롬복 본섬 북서부에 있는 방살(Bangsals) 항구에서 배를 타고 30~40분만 가면 도착한다. 면적은 15km로, 여의도보다 약 5배 크다. 이곳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윤식당'을 찍었다.

배가 해변에 닿을 무렵, 배에 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탄성을 쏟아낸다. 이 다정한 섬은 푸른 하늘과 산호초가 부서져 만들어진 눈부신 해변과 해변에 게으르게 잎사귀를 늘어트린 야자수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자들은 이 섬에 오래오래 머물며 느린 시간을 즐긴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는 스노클링 고글을 쓴 여행객들이 열심히 오리발을 젓고 있다. 바다 쪽에는 알록달록한 선베드가 깔린 카페가 즐지어 있고, 수영복을 입고 선글라스 쓴 여행객들이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다. 그들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타를 튕기고 노래를 부르며 아주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삼판이라는 전통배를 타고 낚시를 나가는 이들도 있다.

길거리에는 없는 것이 많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모터를 단 차량이 없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마차를 이용해도 된다. 경찰도 없다. 경찰 대신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치안을 맡는다. 개도 없다. 대신 고양이와 있다. 길리 섬에는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고양이들로 넘쳐났다. 닭수도 없어 식당이

나 숙소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돌리면 소금기 가득한 물이 나온다. 지하수에도 해수가 섞여 있다. 길리는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바다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각양각색의 열대어와 산호초를 만날 수 있다. 1m에 달하는 거북이, 죽은 듯 깔려있는 바다뱀이 있다. 생수병에 물고기 밥을 넣으면 수십 마리의 열대어가 몸 주변을 감싸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굳이 스쿠버 다이빙이 아니더라도 스노클링만으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신비한 산호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길리의 바다다. 바닷가 한 칸에 자리한 스노클링 장비 대여점에서 고글과 오리발만 빌려 50m만 헤엄쳐나가면 화려한 수중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굳이 배를 타고나가는 스노클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섬은 동쪽 해안 부분만 개발되어 식당과 카페,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거리 양 옆으로 자리한 가게에서는 현지인들이 과일과 커피, 채소를 판다. 나시고랭이며 미고랭 등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도 실컷 맛볼 수 있다. 저녁이면 보랏빛 노을이 수평선 너머에서 번져와 섬을 온통 물들인다. 길리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이다. 물결이 일 때마다 세상은 보랏빛으로 넘실댄다. 노을이 물러가면 별이 뜨고 섬은 고요해진다. 어부들과 나무, 선인장들도 깊은 잠에 빠진다. 긴 하루를 보내고 밤바다에 홀로 앉아 파도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면 하늘 위의 천사가 앉아 커다란 눈을 글썽이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길리는 그런 섬, 내 안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섬이다.

### 야생의 섬 코모도 아일랜드

플로레스 섬 끝에 있는 라부안 바조는 전세계 дай버들에게는 꿈의 다이빙 포인트로 불리는 곳이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갖가지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열대어로 가득한 신비로운 수중세계를 만날 수 있다. 라부안 바조 인근 바다에는 다이빙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다이버들은 리브어보드(Liveaboar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 리브어보드는 말 그대로 배에서 며칠씩 머물며 다이빙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배 여행의 낭만과 스쿠버 다이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만타 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마카사 리프(Makassar Reef), 산호초가 아름다운 크리스탈 락(Crystal Rock) 등이 유명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다.

라부안 바조는 코모도 섬(Komodo Island)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기도 하다. 코모도 섬은 코모도 도마뱀이 사는 곳. 코모도 도마뱀은 전 세계에 5,0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동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진 도마뱀이자 공룡과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파충류다.

코모도 섬 여행은 크루즈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 2박 3일 동안 코모도 섬 탐방을 비롯해 파다르 섬 트레킹과 핑크비치 스노클링을 즐기는 일정이다. 크루즈는 피니시(Phinish)라는 전통 목선을 개조해 만들었는데 커다란 돛이 달려 있다.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요리사 등 1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여행자들과 함께 승선한다. 물론 지역 전문 가이드도 동행한다.

여행은 느긋하고 여유롭다. 배 위에서 먹고 자며 시간을 보낸다. 참가자마다 개인 방이 주어진다. 샤워실도 딸려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다. 식당도 마련되어 있다. 방 위에 자리한 갑판에서는 쏟아질듯한 별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도 많다.

포구를 빠져나온 크루즈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가끔 갈매기들이 날아와 돛대 위에 한참을 앉았다 사라진다. 스마트폰 안테나는 아예 뜨질 않는다. 물론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거나 갑판에 누워 맥주를 마시는 일이 전부다. WIN CLASS

### TRAVEL TIP

**✈ 교통** 한국에서 롬복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다. 보통 자카르타를 경유한다. 발리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타거나 페리를 타고 롬복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국내선을 타고 자카르타에서는 2시간, 발리에서는 20~30분이면 도착한다.

**🏠 숙소** 롬복에서는 생기기 해변에 숙소를 잡는 게 좋다. 노보텔 롬복([www.novotellombok.com](http://www.novotellombok.com))은 77개의 리조트룸과 25개의 빌라 등 총 10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길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하루에 약 2~3만 원 정도이다.

**🚲 기타** 해변가에 저렴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많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섬을 돌아볼 수도 있다. 자전거를 빌리는 비용은 5,000원 정도다. 라부안 바조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외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숍이 많다. 크루즈 프로그램은 시모어 파푸아 선사(seamorepapua.com)에서 운영한다. 2박3일 패키지 가격은 1인당 600달러부터다. 라부안 바조 재래시장에서 원주민들이 직접 짠 직물과 코모도 조각, 진주 액세서리 등과 같은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미니멀 라이프, 풍요에서 가치의 시대로

가지는 것과 버리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하는가. 사실 20세기 내내 우리가 추구해왔던 건 더 많이 갖기 위한 풍요의 삶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갖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의 탄생이다.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 우리가 나영석 PD의 예능에 열광하는 까닭

나영석 PD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을 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단어가 바로 '미니멀 라이프'였다. '삼시세끼'라는 제목에 담겨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그간 예능 프로그램들이라면 당연한 듯 여겨져 왔던 '덕지덕지 붙어 있는 미션들'을 모두 버렸다. 대신 <삼시세끼>는 오롯이 세 끼를 자급자족해 챙겨먹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나영석 PD는 이런 시도가 모험이라고 했다. 예능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배워왔던 그였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도시를 떠나 호젓한 시골집에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먹는 삼시세끼에만 집중하자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았던 빗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에 보이지 않던 밤하늘의 별들이 암흑천지 시골 하늘에 펼쳐졌다.

우리가 나영석 PD의 예능에 열광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갖고 있는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윤식당>도 마찬가지다. 발리의 외딴 섬에서 가게를 오픈하는 그들은 사실 이곳에서의 삶을 잠시 버려둔 채 그 장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채워 넣기보다는 비워두는 것. 그래서 그 여백이 말하게 하는 것. 나영석 PD의 예능이 보여주듯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가진 역설이다.

### 어째서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질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그저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가진 이들의 손길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걸 가진 이들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게 된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동과 스트레스를 감내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지워져 간다. 이걸 어찌 보면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에 예속된 노예의 삶이다. 우리가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다.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의 삶에서 잃어가고 있었던 진정한 삶의 진면목을 마주하는 일이다.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정착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유목

나영석 PD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을 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단어가 바로 '미니멀 라이프'였다. '삼시세끼'라는 제목에 담겨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그간 예능 프로그램들이라면 당연한 듯 여겨져 왔던 '덕지덕지 붙어 있는 미션들'을 모두 버렸다. 대신 <삼시세끼>는 오롯이 세 끼를 자급자족해 챙겨먹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나영석 PD는 이런 시도가 모험이라고 했다. 예능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배워왔던 그였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도시를 떠나 호젓한 시골집에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먹는 삼시세끼에만 집중하자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았던 빗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에 보이지 않던 밤하늘의 별들이 암흑천지 시골 하늘에 펼쳐졌다.

우리가 나영석 PD의 예능에 열광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갖고 있는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윤식당>도 마찬가지다. 발리의 외딴 섬에서 가게를 오픈하는 그들은 사실 이곳에서의 삶을 잠시 버려둔 채 그 장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채워 넣기보다는 비워두는 것. 그래서 그 여백이 말하게 하는 것. 나영석 PD의 예능이 보여주듯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가진 역설이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건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그저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가진 이들의 손길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걸 가진 이들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게 된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동과 스트레스를 감내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지워져 간다. 이걸 어찌 보면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에 예속된 노예의 삶이다. 우리가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다.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의 삶에서 잃어가고 있었던 진정한 삶의 진면목을 마주하는 일이다.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정착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유목

하던 삶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또 소유할 필요도 없었다. 옮겨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갖는 단순한 삶이었다. 하지만 정착한 이후 우리의 삶은 욕망을 드러냈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는 삶이 시작됐다. 현재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이 마치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물건만을 영위하려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니멀 라이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모두가 추구하는 욕망이 아닌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다.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개개인의 가치실현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삶.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강령이다.

### 선택과 집중이 아니면 삶은 보이지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를 주도한 건 2010년 웹사이트 '미니멀리스트 닷컴(TheMinimalists.com)'을 운영한 조슈아 필즈 밀번(Joshua Fields Millburn)과 라이언 니코디머스(Ryan Nicodemus)다. 좋은 직장에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집에 살며 일주일에 70~80시간씩 일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삶의 허기를 채워오던 이들은 그런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미니멀 라이프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이른바 '단사리(斷捨離)' 열풍이 불었는데 여기서 단사리란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뜻이다. 대지진을 통해 사람들은 오히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됐고, 또한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집과 자신들을 보며 소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가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만의 결과만은 아니다. 장기 불황 같은 현실이 이러한 단순한 삶의 적극적인 추구로 이어지는 외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나 전세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목해야 하는 삶 같은 것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가 말하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물건들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끝없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함으로써 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 캐런 킹스턴은 잠동사니가 쌓여가는 삶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길. 그리고 비움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삶.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역설이다. WIN CLASS



# KLPGA 박현지 프로의 드라이버 샷

진행. 김대진 편집국장 사진. 조도현 기자 장소제공. 용인CC



## 박현지 시범프로

KLPGA 투어 프로 (정회원)  
국가대표 상비군 1위(2006)  
BC 카드 클래식 8위  
이데일리 레이더스 오픈 8위  
휘닉스 파크 클래식 7위  
MFS골프 웨어 모델

골퍼라면 누구나 드라이버 샷 비거리를 많이 내고 싶어 한다. 이는 프로나 아마추어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들이 멀리 치려는 욕심에 드라이버 샷을 할 때 힘이 너무 들어가 리듬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방향도 어긋나기 십상이다.

때로는 뒷 땅을 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 중에는 힘을 줘서 공을 세게 때리면 공이 멀리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오판이다. 프로 선수들의 드라이버 샷 비거리가 아마추어 골퍼들보다 더 많이 나는 것은 클럽헤드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거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잔뜩 힘을 줘서 칠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현지 프로는 장타를 칠 때 리듬에 신경을 쓰면서 클럽헤드의 스피드를 한껏 이용한다. 박현지 프로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또 임팩트 구간에선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평소 비거리보다 10~20미터는 더 거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를 살펴보자. 아마추어 골퍼들의 어드레스 자세를 보면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무릎을 펴고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릎을 과도하게 굽혀서 어드레스를 주저앉아 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손목을 너무 꺾어 늘려서 공과 눈 사이가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전부 흐트러지게 된다.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스탠스는 본인의 어깨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서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드라이버는 클럽 길이가 길기에 좁게 서면 임팩트 때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WIN CLASS

## 잘못된 어드레스



1. 무릎을 지나치게 굽힌 자세
2. 손목의 위치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
3. 백스윙 때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면 궤도가 플랫폼하게 된다.  
또한 아래쪽 사진과 같이 오른 손목으로 스윙하면 클럽헤드가 뒤집어 진다.



## 잘못된 어드레스



1. 자세 - 몸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볼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2. 볼의 위치 - 볼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3. 다운스윙 - 다운스윙 때 몸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4. 임팩트와 폴로 - 다운스윙 때 왼팔을 잡아당겨 클럽헤드가 열려 공이 슬라이스로 날아갈 확률이 높다.
5. 피니시 - 클럽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클럽을 위로 들어 올리고 있다.

## 올바른 어드레스



1. 스탠스는 어깨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다.
2. 무릎은 살짝 탄력있게 구부려 준다. 이때 중심이 뒤로 가지 않게 주의한다.
3. 엉덩이를 뒤로 빼어 등이 일직선으로 곧게 퍼질 수 있도록 해준다.
4. 턱은 스윙 때 어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준다.
5. 골프클럽의 그립과 허벅지 간격은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둔다.
6. 공 위치는 두 발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왼발에 가깝게 둔다.



## 2017년 S/S 골프 의류 트렌드를 파헤치다

여름을 맞아 새로운 골프웨어를 구입하려는 이들을 위해 골프 웨어 2017 S/S 트렌드를 알아봤다. 트렌드와 개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나만의 룩을 완성해보도록 하자.

글. 에디터 유승보 사진. 그린조이 제공



### 기능에 중점을 둔 미니멀리즘

2017 골프웨어 S/S 시즌 트렌드는 화이트, 그레이, 레드, 블랙 등 대표 컬러를 바탕으로 하면서 청량함을 주는 컬러로 포인트를 준 의상과 좀 더 영(young)해 보일 수 있는 패턴을 쓴 디자인으로 나뉜다. 단색 컬러로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하의 위에 스트라이프, 도트 등으로 포인트를 준 상의를 입어 튀지 않으면서도 센스가 돋보이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골프 웨어라는 특성상 디자인만 우선시 되서는 안된다. 기능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후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다. 날씨 변화가 잦은 여름에 유용한 소재의 탈부착이 가능한 바람막이는 2017 골프웨어 S/S 시즌에 유용한 아이템이다.



### 심플함과 화려함의 적절한 조화

여성복 또한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을 통해 깔끔함과 세련됨을 강조한 디자인이 2017 골프웨어 S/S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흰색과 파랑색 계열의 모자로 계절감을 살리는 것도 스타일링에 좋은 방법이다.

단색 위주의 컬러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화려한 아트웍과 페인팅 패턴의 그래픽을 활용해 캐주얼한 럭셔리한 골프웨어 스타일을 채용한 디자인도 많은 브랜드에서 주목하고 있다. 유니크한 패턴에 화사한 컬러감과 가벼운 소재감을 더해 더운 날씨에 자칫 지칠 수 있는 필드 위에서 좀 더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 기분 좋은 햇살 아래 읽는 책

맑은 하늘 아래 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계절. 집에만 있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외출을 해봅니다. 심심한 마음을 달래려 책 한 권을 든 채로요. 서서히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두 권의 소설과 한 권의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을 따라가며 여름의 햇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글·사진. 문학동네 제공



뜻밖의 생 | 김주영 지음

김주영 작가가 총 열 권에 달하는 『객주』 완간 이후 처음으로 신작 장편소설 『뜻밖의 생』을 출간했다. 올해로 등단 47년, 여든을 목전에 둔 일흔 아홉이라는 나이에도 작가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청송에 내려가 집필에 몰두해 새 소설을 내놓았다. 한 사람의 일생을 유년부터 노년의 시간까지 그려낸 『뜻밖의 생』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장만이 쓸 수 있는 삶의 혜안이 담긴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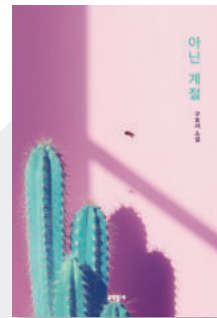
작가는 한 인간이 생을 살아내며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펼쳐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통해 삶의 본질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 | 장석주 지음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에는 저자가 살아낸 인생의 한 시기와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일상에서 사소한 조출한 소회가 담겨 있다. 저자는 이십대부터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며 출판 편집자로 살아왔다. 마흔이 지나서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경기도 안성의 시골로 내려가 집을 짓고 살다가 현재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서교동의 산책자로 살아가고 있다.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는 어느 ‘오후’에 가만히 쓸쩍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저자는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익숙한 길을 걸어보며 떠오른 생각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 여행자로서 낯선 풍경에서 쉬어가며 인생의 심연을 엿보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의 곳곳에는 여유와 평온이 숨어 있고 고독과 회환이 깃들여 있다.



아닌 계절 | 구효서 지음

“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즉각 존재를 환수당하는”, “쓰되, 다른 것이 아닌 소설을 써야 하는” 것이 소설가의 운명이라 말하는 작가 구효서. 올 초 제41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쓴 수상소감에서였다.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는 작가에게 더욱 특별한 소식이었으리라. 그의 아홉 번째 소설집을 묶는다.

『아닌 계절』은 삶의 그늘진 구석과 군중 속 개인이 느끼는 고독, 타인에 대한 이해불가능성 등을 그린 전작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인물의 이름도 국적도 모호하고 시공간적 배경 역시 불분명하다. 현실의 반영과 모방을 버리고 현실 자체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닌 겨울’과 ‘아닌 여름’, ‘아닌 봄’, ‘아닌 가을’로 이어지는 작품의 배치와 이를 아우르는 ‘아닌 계절’이라는 제목, 방점은 ‘아닌’에 찍힌다. WIN CLASS

# Innovation Bank of Korea



# 나는 새롭다

은행을 벗어나자  
금융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객의 옆이다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